전남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3736개 창출

346억 투입…동료상담·전남형 권리중심 자립생활 지원 등 삶의 긍정적 변화 기대

전남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341개 증가한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는 크게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100% 지방비로 지원한다.

공공 분야 일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으며 도내 65개 제공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를 도와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와 이동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은 심한 장애로 민간 노동시장이나 기존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권익옹호,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체험, 강의·공연 등 인식개선, 3가지 유형으로 운용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9개 광역단체의 참여자 10명당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비교되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 대상은 전남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李대통령, 첫 정상외교…9개국과 회담

"G7 플러스 국가 위상 분명히 해"

한일 셔틀외교 재개 '성과' 중동발 악재 한미회담 불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단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떠나 이곳에 도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착 첫날엔 캘거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날은 G7 회의장이 있는 캐내내스키스에서 7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초청받았다.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마주해선 최근 인도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 가운데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다만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불발됐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당초 이날 예정됐었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데 따라 무산됐다.

이에 첫 한미정상 대면 외교는 과제로 남았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 2차 추경 20조원 이상일 듯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와 관련,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여수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146명 채용 목표

채용관서 현장 면접…창업 아이템 전시부스 운영 호응

전남도가 1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2025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구인구직자 1000여 명이 방문했고, 구인기업의 채용 목표는 146명이다.

박람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은경 여수YWCA 회장,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구인기업, 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는 취업준비관, 직업정보관, 채용관, 창업관 등 총 60여 부스로 운영됐다.

구직자들은 인공지능(AI) 디자이너 사진관에서 최신 직업 트렌드를 접하고, 도배 체험, 업사이클링 소품 만들기 등 이색 직업에 관심을 보였다.

구인기업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이 진행된 채용관에는 순천과 광양지역 1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30개 기업은 146명의 인재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 박람회장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구직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창직 분야와 관련해 '여성창업,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주제로 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창업 아이템 전시 부스는 전년보다 확대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도 모든 여성이 공평한 기회 속에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개최되는 여수지역 발전을 위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 기후정상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5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순천을 시작으로 이날 여수에 이어 9월 2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올해 마지막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1면 '국정기획위'서 계속

해남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건립된다.

광주·전남·전북에 걸쳐서는 글로벌 RE100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주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지정됐다.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 식품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해설서에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골격도 포함됐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공동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각 권역에 맞는 자율성과 산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제주·강원·전북은 별도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유연한 통합과 조정을 통해 지역 자치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관계자는 "광주에 AI 컴퓨팅센터가 추가 구축되면 국내 AI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이 명확히 설정된 만큼 실현 속도가 관건"이라고 밝혔다.